

라우스의 야생 생물: 하늘

시레토코의 하늘에는 대형 멸종위기종인 블랙이스턴 물고기잡이 부엉이나 흰꼬리수리, 쇠부리슴새나 소리를 내며 우는 소형 새의 무리 등 다양한 새가 1년 내내 날아다닙니다. 시레토코 반도는 새들에게도, 들새 관찰자에게도 낙원입니다. 라우스를 방문하면 숲에서 하이킹을 할 때나 바다를 한 눈에 담은 전망 데크에서 많은 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다새

매년 겨울에 네무로 해협으로 흘러들어오는 유빙에는 날개를 펼치면 2m나 되는 참수리나 흰꼬리수리와 같은 대형 독수리가 따라옵니다. 겨울의 버드 워칭 투어에서는 이러한 새를 살펴보세요. 초여름에는 동남부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몇천 마리나 되는 쇠부리슴새가 네무로 해협으로 모여듭니다. 구지라노미에루오카 공원(고래가 보이는 공원)의 전망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숲과 산의 새

시레토코는 멸종위기종인 블랙이스턴 물고기잡이 부엉이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보호, 관리해 온 덕분에 블랙이스턴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둥지를 틀기 위한 안전한 장소와 넉넉한 식량 공급원을 확보합니다. 시레토코의 산에서는 솔양진이나 잣까마귀가 눈잣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을에는 잣까마귀가 솔방울의 씨를 바위가 갈라진 틈에 비축해서 겨울에 대비합니다. 라우스다케 산 정상을 목표로 트레킹을 할 때는 이러한 새를 찾아보세요.

새가 지저귀는 숲

두 군데의 보코 숲 트레킹 코스의 일부는 「새가 지저귀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박새나 황금새의 지저귀, 오색딱따구리의 꼬꼬 하는 울음소리, 병어리뻐꾸기의 특색 있는 울음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